

파이토믹스, 빅데이터+AI로 사우디 그린바이오 협력 "K-스마트팜 알린다"

입력 2022.12.02. 오전 10:24 수정 2022.12.02. 오전 10:25



사우디 정부 산하 지속가능농업연구개발센터에서 정용석 파이토믹스 대표가 지난달 29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스마트팜 연구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. /사진제공=파이토믹스

빅데이터와 인공지능(AI)을 접목한 첨단 그린바이오 전문기업 파이토믹스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산하 종자센터 및 식물자원센터, 킹사우드대학교를 비롯한 주요 농업 전문기관과 공동연구 추진을 협의했다고 2일 밝혔다.

정용석 대표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서 정부 산하 종자센터 및 식물자원은행센터, 지속가능농업연구개발센터, 킹사우드대학교 농업과학대학, 과학전문 컨설팅회사 라시둔(Rashidoon)과 잇따라 만나 향후 빅데이터와 AI를 접목한 첨단 스마트팜 공동연구 및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.

정 대표는 종자센터 및 식물자원은행센터, 지속가능농업연구개발센터에서 센터장 및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이미지 분석 및 머신러닝 등을 활용한 연구와 피노믹스 활용 스마트팜 연구에 대한 강의를 한 후 향후 공동연구 추진을 논의했다. 또 킹사우드대학교 농업과학대학에서 학문 교류 가능성을 타진하고 공동연구를 위한 프로포절 준비를 진행했다.

이밖에도 사우디 과학전문 컨설팅회사 라시둔의 파이살 빈 술탄 알 수바이 대표와 함께 왕실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.